

# 진실과 허구의 경계선, 팩션의 자리를 묻는다

## 사실 왜곡 우려 불구, 한국형 팩션 소설 호황

1448년(세종 30년) 가을. 젊은 집현전 학사 장성수의 시체가 경북궁 후원의 열상진원 우물 속에서 발견된다.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살인이 이어진다. 사건은 점점 복잡해지고 살인자의 정체는 종잡을 수 없다.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집현전 학사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추리에서 출발한 팩션(faction) 소설, 이정명의 《뿌리깊은 나무》의 도입부이다. 이 소설은 현재 각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 뿐이 아니다. 《훈민정음 암살사건》 《원행》 《신의 죽음》 《국새》 《그 이상은 없다》 등도 주목을 끌고 있는 팩션 소설들이다. 이들이 특별한 것은 외국 번역 소설이 주류를 이루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모두 국내 작가가 집필한 팩션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 번역 소설까지 합하면 줄잡아 백 여 종에 이르는 팩션 소설이 출간되어 있다. 이쯤 되면 ‘팩션 소설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평면적 내용과 작가 상상력이 만난 입체화 작업

팩션의 매력은 일반 대중이 어렵게 느끼는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적당히 버무렸다는 데 있다. 중, 고등학교 시절 마르고 닳도록 외워왔던 국사책의 평면적 내용들이 작가의 상상력과 만나면서 입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에 독자들은 매료되는 것이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팩션 바람에 대해 한기호 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20세기에는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방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현대인들은 기존의 지식을 종합해 자

기만의 상상력을 만드는 것을 원한다”고 그 배경을 분석했다.

“팩션의 원리는 인터넷 정보 검색과 비슷하다. 살인사건이 존재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지식들이 나열되는데, 이것이 독자의 상상력을 강제하고, 책을 다 읽고 나면 지적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마치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고 소비하는 것과 비슷하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이야기만큼 좋은 소설 소재는 없기에 팩션 소설의 호황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세계 최초의 팩션 소설이라 불리는 트루먼 카포티의 《In Cold Blood》가 1966년 출간된 이후 팩션 소설은 끊임없이 진화, 발전해 왔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나 댄 브라운의 《다빈치코드》도 팩션 소설이다.

지금 팩션 바람이 하나의 문화코드로 읽히는 것은 이것이 영화나 TV 드라마와 맞물리며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대장금>이나 <주몽>, 영화 <왕의 남자> 등 한국형 팩션의 대중성이 입증되면서 출판계에서도 ‘한국형’ 팩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 ‘한국형 팩션’ 바람… 단 한 줄의 사료에서 ‘대작’ 탄생도

팩션 소설은 단 한 줄의 사료에서도 출발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계간지 <세계의 문학>에 ‘리심, 파리의 조선 궁녀’라는 팩션 소설을 연재하고 있는 김탁환 카이스트 교수는 ‘19세기 말 초대 프랑스 공사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와 사랑에 빠진 리심이란 궁중 무희가 있었다’는 사료에 근거에 200자 원고지 3000매 분량의 소설을 집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팩션을



빛는 작가의 영혼은 바위 같고 바람 같다. 고서를 쌓아 놓고 무거운 엉덩이를 무기 삼아 정독의 밤을 보낸 후 등장 인물의 삶을 좇아 시공간을 헤매기 때문이다"라고 어느 신문에서 밝힌 바 있다.

팩션 소설의 기본적 틀은 다음과 같다. 살인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사건을 해결하면서 거대한 음모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진실 배후에는 어떤 음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진실의 배후를 밝혀내는 작가의 상상력이다. 하지만 이 상상력도 황당무계한 것은 안 된다. 고서에서 추출한 방대한 자료들은 씨실이 되고, 빛나는 작가의 상상력은 날실이 되어 섬세하게 교직되어야만 읽을 만한 권의 팩션 소설이 탄생하는 것이다.

#### 영성한 구성·현존 인물 훼손 지양...

##### '문학 저변 확장에 크게 기여'

지금까지 독자들이 한국형 팩션에서 불만을 느껴왔던 것은 이런 섬세함 없이 영성한 구성으로 상상력과 사료를 결합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외국 유명 소설을 베낀 듯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함량 미달의 작품들도 독자와 평단

의 외면을 불러왔다.

하지만 팩션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형 팩션 소설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기발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신인 작가들은 물론 주류 작가들도 팩션 소설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팩션 소설은 대중성과 작품성이란 양날의 칼을 동시에 얻게 된 것이다.

출판 시장에 팩션 소설들이 쏟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팩션의 장르적 특성상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불분명한데다가 극적인 장치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 이는 현존인물의 명예 훼손 문제로까지 이어져 논란이 되기도 한다.

팩션은 어차피 역사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따지고 들면 그 장르적 생명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한기호 소장은 "팩션에서 진실성을 문제 삼기란 힘들다. 작가의 상상력이 없다면 팩션이란 존재할 수 없는 장르이기 때문"이라며 "팩션 소설이 침체에 빠진 출판 시장에 활력을 주고 우리 문학의 저변을 넓힌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팩션 소설의 의의를 밝혔다. [4]

취재\_이주연 기자